

제시문 (가),(나),(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간의 관계에서 여러 차이점이 발견된다. (나)와 (다)는 서로간의 행복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지 않는다. 오로지 절대자인 신에 의해서만 운명이 결정되므로 사회에서 타인에 의한 영향이 없다.

반면 (나)에서도 또한 '하늘'이라는 절대자가 등장하지만 행복을 주관하는 존재가 아닌 행복평등을 말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결과, 행복이란 것은 인간들 사이에서 즉 타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남편의 출유가 결국 아내가 쓸쓸히 늙어갈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그 예라 볼 수 있다. (다)에서도 공리에 따라 개인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고 총합인 그 결과를 행복이라 보았으므로 서로 간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개인과 타인 행복사이의 영향력은 누구의 행복에 중점을 두는지에서도 차이를 갖게 한다. (가)와 (다)는 타인의 행복을 더 중시 여기지만 (나)에서는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함을 말하면서 로마인에게 평가를 받는 모습으로 보아 남에게 보여 지는 점을 중시했을 것이다. 개인보다는 타인에게 행복을 주는 방향을 더 고려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에서는 공리라는 원리가 개인은 타인인 공동체의 행복을 우선으로 둔다. 이와 달리 (나)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출유에 절연을 요구하며 남편보다는 개인을 행복의 주체로 보면 행복을 추구한다.

이런 중점이 달라지면서 각 제시문은 행복의 조건에서도 차이를 가진다. (가)에서는 인간은 운명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훌륭히 해내는 것은 의무하며 곧 행복이라고 보게 되었고 (다)에서는 공동체이익이 행복이므로 고통이 있든, 결과적 행복추구를 행한다. 쾌락이든 행복의 범위가 넓은 것이다. (나)에서 인간은 자신이 행복해야하므로 도덕 원리 같은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만 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 점에서 (다)와 공통점을 갖는다.